

장성군, 농촌마을 '스마트 비상방송' 설치

가정·소방서·주민 서로 연결 양방향 재난구조 시스템 노인 가구 재난·위급상황 발생 때 골든타임 확보 효과

장성군이 마을방송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고령의 1인 가구가 많은 농촌마을에서 위급상황 발생 때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스마트 양방향 재난구조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각 마을별로 설치된 옥외용 스피커를 통한 마을방송은 주민들에게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군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는 스마트 시스템은 가정과 소방서, 인근마을 주민들을 서로 연결하는 양방향 구조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각 가정마다 스피커가 설치되고 마을방송을 실시간으로 정확

하게 들 수 있다.

방송을 놓친 경우에도 녹음된 방송을 다시 들 수 있다.

또 각 가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스피커 상단의 버튼을 눌러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 이장, 소방서 등에 알릴 수도 있다.

마을이장이 직접 마을회관에서 방송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방송을 할 수 있어 재난 예·경보 전파를 비롯한 각종 공지사항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군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거친 후 내년 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소방서와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스마트 양방향 재



응급상황 발생 때 재난 경보를 전파하고, 휴대전화와 연계해 방송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양방향 비상방송 시스템'.

난구조 시스템이 도입되면 각종 재난과 응급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초기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골든타임 확보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성=김홍호 기자 yongho@

화순군, 노인 일자리 사업 '잘하고 있다'

참여자 3724명 설문조사...97.7% "만족한다" 응답

화순군의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3724명을 상대로 만족도와 효과를 검증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7.7%가 사업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부터 이달 8일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 인력과 참여자 간 일대일 면담으로 이뤄졌다.

높은 만족도는 사업 재참여 비율에서도 확인됐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재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98.3%에 달했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 도모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 참여를 통해 가장 크게 느꼈던 효과'에 관한 질문에 '경제적인 도움'이라고 답한 응답자(63.2%)가 가장 많았다.

이어 23.5%는 '신체적 건강 개선과 증진'을 들었으며 8.7%는 '대인관계 개선'이라고 답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이유도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57.2%는 생활비 마련을, 응답자 33.2%는 용돈 마련을 위해 참여했다고 꼽았다.

한편 화순군은 올해 노-노케어, 근린생활관리, 경로식당, 학교급식 등 4개 분야에서 11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남 지역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3771명이 참여하고 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담양관광 사진 공모전' 당선작 발표

대상에 김현옥씨 '아름다움 앞에 서다'

담양군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사진애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담양관광 사진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했다.

당선작은 대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5점, 입선 31점 등 총 40점이 선정됐다.

대상은 김현옥씨의 '아름다움 앞에 서다' (사진), 우수상에는 박운준씨의 '관방 제림의 가을 풍경', 김해웅씨의 '남산리 오층석탑', 김정현씨의 '서하당에서'가 선정됐다.

대상작은 명옥헌 배롱나무의 붉은빛과

우거진 숲을 다채로운 색감으로 잘 담아 내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명옥헌, 서하당, 죽림재 등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숲은 관광지 사진이 많이 당선작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번 공모전 입상작을 담양의 아름다움 자연경관과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는 담양관광 홍보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담양사랑상품권' 내달 6일까지 디자인 공모전

담양군은 지역의 특색과 상징성을 담은 디자인을 찾기 위한 '담양사랑 상품권' 디자인 공모전을 다음달 6일까지 진행한다.

군은 독창성, 대중성, 상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담양만의 특색을 가진 종이 상품권의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제안서와 동의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한 작품은 2차 심사를 거쳐 시상한다. 최우수상 1명(300만원), 우수상 1명

(100만원), 장려상 2명(각 50만원)으로 총 상금 500만원 규모다.

담양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담양군 상인협회의에서 발행해 지역 가맹점에서 활발하게 사용 중이다.

담양군은 내년부터 지급예정인 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발행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군수가 직접 발행하고 종류도 종이 상품권에서 카드와 모바일로 확대해 발행할 계획이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화순국화향연' 방문객 입맛 사로잡은 국화빵·국화누룻지

61만여명이 찾은 '2019 화순 국화향연'에서 국화를 활용 개발한 국화빵과 국화누룻지가 관람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군에 따르면 한국생활개선화순군연합회가 축제 기간(지난 17일) 축제장에서 봉어빵 1만 봉지, 누룻지 560봉지를 판매했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가 새롭게 개발한 '화순 들순이 국화빵(사진 왼쪽)·국화누룻지'의 제조 기술은 생활개선회 회원들에게 전수했다.

국화빵은 화순군회인 들순이(국화) 모양으로 만들었다.

차별화를 위해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감국을 넣어 국화 향을 머금은 쫄깃한 빵을 만들었다.

카스텔드 크림 소에는 지역 특산물인 옥수수를 넣어 씹히는 식감을 더했다.



국화누룻지는 감국을 제외하고 첨가물 하나 없이 스낵처럼 만들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축제를 찾은 관광객에게 국화 상품을 알리고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며 국화축제의 맛을 맛으로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담양군, 내년도 예산안 3786억원 편성

군민소득 4만달러, 인구 7만 자립형 생태도시 중점

담양군이 소득 4만 달러,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 기반 만들기에 중점을 둔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378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3528억원) 보다 258억원(7.3%)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3691억원, 특별회계 95억원이다.

군은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첨단 농업기반 구축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강화 ▲지역생태 지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인프라

확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기능 강화에 뒀다.

담양군 관계자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 재정을 편성했다"며 "2020년은 민선 7기 역점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로 행복담양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은 군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장성군의회 '백양사 총림 해제 반대'...조계종에 청원서 전달

장성군의회는 백양사 총림(叢林) 해제 결정을 내린 조계종 측에 반대의 뜻을 담은 청원서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총림은 승려들의 참선수행 전문도량인 선원(禪院)과 경전 교육기관인 강원(講院)을 비롯해 계을 전문교육 기관인 율원(律院)을 모두 갖춘 사찰을 지칭한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6일 열린 중앙총회에서 백양사가 총림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총림 해제를 결의했다.

이 같은 결정에 장성군의회는 백양사가 단순히 종교사찰이 아니라 장성의 역사와

문화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문화재라며 백양사 총림 해제에 대한 군민의 우려를 조계종 측에 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군의회는 청원서를 통해 "고불총림 백양사가 호남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사찰로 특히 장성군민에게는 종교를 넘어 정신적 안식처이자 자부심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계종의 백양사 총림 해제에 대해 지역민들은 비통하고 상실감이 크다"며 "남은 절차를 거검토해 총림 해제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성=김홍호 기자 yongho@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건물** ▶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건물** ▶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 건물** ▶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 건물** ▶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 건물** ▶ 광주 남구 주월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306㎡(64.61평) 건물 : 494.4㎡(149.56평) 지상4층 **매매가 9억3천만원** 삼육고 인근 푸른길도서관 앞 공실없음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 광주 광산구 고동동 토지 : 1705.3㎡(515.9평) 건물 : 1358.46㎡(410.9평) 감정가 13억1천2백만원 최저가 (70%) 9억1천8백5십만원
- 주 택** ▶ 광주 북구 장등동 41번지 토지 : 598㎡(180.9평) 건물 : 263.04㎡(79.6평) 지상3층 감정가 4억7천8백만원 최저가 3억3천5백만원
- 주 택** ▶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7번지 토지 : 337.476㎡(102.089평) 건물 : 298.282㎡(90.23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 3천2백3십만원
- 주 택** ▶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6-26 토지 : 354.615㎡(107.271평) 건물 : 329.717㎡(99.739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2천2백5십만원
- 아 파트** ▶ 광주 서구 쌍촌동 푸르지오 47평형 감정가 7억2천1백만원 최저가 5억4백7십만원
- 아 파트** ▶ 광주 남구 봉선동 더셀2단지 54평형 감정가 11억2천6백만원 최저가 7억8천8백만원
- 아 파트** ▶ 광주 북구 용봉동 쌍용에가 54평형 감정가 5억6천만원 최저가 3억9천2백만원
- 아 파트** ▶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2차 56평형 감정가 5억3천만원 최저가 3억7천1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